

“광주·전남은 원래 한 뿌리...상생의 공동 열매 맺겠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1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 현장에서 시중 일관 서로 귀엣말을 주고 받으면 친숙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상대 시·도의 실국장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무엇보다 정서적 일체감을 되살리는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국회, 정부부처 방문도 함께 일정을 잡고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상호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가난한 집안일수록 형제간 우애가 깊고, (지금까지)부자 집안에서 우애가 깊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만들 때 시장과 도지사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시·도민 모두가 힘을 모았다”며 상생을 다짐했다.



윤장현 시장

출향인사들과 교감...시의회와 비전 공유

제2 남도 학습 등 현실적 문제 해결

다만 그동안 기정사실화했던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문제는 시·도의회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분간 유예되거나 다른 대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서적 일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 특히 전북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윤 시장은 “한 뿌리였다든 점을 계속 강조하겠다. 시·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하고 설명하며 비전을 공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출범 공동 인터뷰

이낙연 지사



마련할 것인가.

▲윤 시장은 “위원회가 그 기능들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출향 향우를 포함해 실질적인 것들로 다져질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잠자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교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 지사는 “오늘 합의한 14개 항목 중에는 임기 4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다. 충실히 이행해가는 것만으로도 목표는 달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을 비롯해 지역사회가 상생의 여론을 만들고 주도해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서로의 역점사업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4개 합의사항 빠르게 진행...전북 배려

광주·전남발전연 통합은 의회와 협의

입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고, 광주에 있는 병원의 예산 집행은 제가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도민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과거에는 광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안 됐다. 광주와 전남이 남이 아니며, 가급적 함께 있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내보이고 국회, 중앙정부에서 활동도 같이 하면서 공동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14개 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진행시키고 그 외에 몇 가지 일이 더 있을 것이다. 특히 ‘소외감’이 큰 전북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문제는.

▲이 지사는 “연구원은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다. 시장, 지사가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 큰 방향에서는 거의 합의가 된 것이거나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 규정과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다. 상생한다고 해놓고 미래를 따로 연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시·도 상생의 장기적 토대는 어떻게



아시아문화포럼 개막 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아시아문화포럼에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 몽탄~나주 동강 전남 최대 문화재 발굴조사

청동기~조선 포괄 유적지...14.5km 지방도 공사 구간 용역 규모만 24억

전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물론 학계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등 시계열적으로 우리나라 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일로읍 산정·복용리,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일원을 대상으로 한 몽탄~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문화재 발굴(정밀) 조사 용역을 24억3700여만원을 기초금액으로 최근 발주했다.

일로~몽탄 간(연장 8.5km), 몽탄~동강 간(5.98km) 구간을 합쳐도 전체 연장은 14.48km에 불과하지만 발굴조사면적이 5만6901㎡에 달해 금액이 상승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10개월 간 인건비 4억7139만원, 직접경비 10억8419만원, 학술료 1억8855만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시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발굴 대상 유적이 많아 구간 대비 역대 최대급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 신장동 유적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매년 2억4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적·유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최근 발주한 여수석창성지의 경

우 기초금액이 7억9000만원,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구간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은 2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까지 이 구간 시굴조사를 맡았던 동산대 박물관 측은 몽탄~동강 구간에는 청동기 유물과 함께 삼국시대 주거지인 구상유구(긴 도랑), 집석유구(돌을 쌓아놓은 것) 등이 다수 찾아냈다. 유구는 옛 건축의 잔존물을 말한다. 또 일로~몽탄 구간에서는 수혈유구(지면에서 판 굴)와 함께 유물산포지는 물론, 고려나 조선시대의 기와주춧돌 집적지나 가마터로 추정되는 외적유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발굴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이 구간의 도로공사를 중단하고 발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 도로가

201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공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광주 신장동 유적과 같이 보존가치가 높을 경우 도로 선행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수진 동산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대부분의 유적이 한 곳에 집중돼 있거나 한 시대의 것만 출토된 것에 비해 이번 몽탄~동강 구간의 경우 다양한 유적, 특히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포괄하는 유적지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1068억원과 851억원이 투입되는 일로~몽탄 간·몽탄~동강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현재 각각 28.84%와 3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9년만에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 장두석 이사장 등 36명 평양 방문

2005년 이후 9년 만에 평양에서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가 열린다. 통일부는 1일 개천절 행사 참석을 위한 우리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총무 원장, 김삼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등 36명은 중국을 거쳐 3~6일 평양을 방문한다.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

회 장두석 이사장과 이애주·임재택 교수 등도 함께 방북해 3일 평양 단군릉에서 열리는 개천절 공동행사에 참석한다.

방북단은 북측 대표단과 4차례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또 흥안 나철 선생 사적지, 묘향산, 을밀대, 보현사, 단군대, 동명성왕릉, 모란봉, 보통문 등 평양의 사적지를 탐방할 예정이다.

평양에서의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는 지난 2002년 시작돼 2005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열리지 못했다.

장두석 이사장은 “이번 방북이 남과 북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도, 순천·장성·여수 순회 ‘여성 취업박람회’

전남도는 순천(8일), 장성(29일), 여수(11월6일)를 순회하며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연다.

도는 박람회장에 창업체험관, 면접지원관 등을 운영해 여성들에게 다양한 정보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양성평등과 성인지 의식을 높이기 위한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운영한다. 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와 여성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61-286-5920)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9%)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5층 참조은인과
4층 한길통증의학과
3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1층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 안두경 천우 하현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경품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본인에만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용오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화산지점 364-7557
KBC광주방송국 및 기독교병원 아래 대성초교 사거리